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투자활성화 논의

- 특허청, 주한외국상의·외투기업과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 국가투자유치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대표 김태형)와 함께 2. 18.(화)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주한외국상의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글로벌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된 기업

이번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이사회 회장, 쉰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서울재팬클럽(SJC), 주한호주상공회의소(AustCham) 등 주한 외국상의를 비롯하여 램리서치(미국, 반도체장비기업), 유미코아(벨기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루이비통, 3M 등 주요 국내 외투기업이 참가했다.

현재 1만8천여개사인 외투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21%, 고용의 5%를 담당할 정도로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서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에 대한 애로 해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외투기업 수(개) : ('22) 16,767 → ('23) 17,375 → ('24) 18,794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품 유통, 특허침해·분쟁대응 등 외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이 논의되었다. 참가 기업들은 한국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산업 환경을 갖춘 나라임을 재확인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외투기업의 혁신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 자산”이라면서, “한국이 더욱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외투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특허청, 주한상의·외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 개요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담당 부서 <총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창대 (042-481-5168)
		담당자	사무관	서효원 (042-481-8180)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4070)
		담당자	사무관	이상현 (044-203-4073)



□ 간담회 개요

- (추진목적)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
- (일시·장소) '25.2.18.(화) 14:00~15:30 / 서울사무소 대회의실(5F)
- (주요내용) 지식재산 심사·심판·보호제도, 외투기업 건의 수렴 등
- (참 석 자) 특허청, 산업부, KOTRA, 외국상의·외투기업 관계자 등

□ 주요 참석자

- (특허청) 특허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주요 정책부서장
- (산업부) 투자정책관
- (코트라) Invest KOREA* 대표, 외투기업고충처리실
 - *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지원을 위한 국가투자유치기관('98.7, 외국인투자촉진법 15조)
- (외투업계) 주한외국상의* 및 외투기업 대표 11개사
 - * 미국(AMCHAM), 영국(BCCK), 유럽(ECCK), 일본(SJC), 호주(AustCham) 등 참석

□ 진행순서(안) (한영 동시통역)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 ~ 14:03	(3")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3 ~ 14:06	(3")	모두말씀	특허청장
14:06 ~ 14:10	(4")	참석자 인사	특허청·산업부 등
14:10 ~ 14:25	(15")	지식재산 심사·심판·보호제도	특허청
14:25 ~ 15:25	(60")	간담회 진행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참석자 전원
15:25 ~ 15:30	(5")	마무리말씀	특허청장